

여름가뭀에 타는 농심...“큰비 안오면 큰일”

전남 저수율 52%...함평·담양·구례는 경제·주의 단계 콩·고추 등 타들어가고 서로 눈에 물 대려고 다투기도

#1. 고충군 풍양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A(40)씨는 입이 바짝 마른다. 벼 이삭이 올라와 눈에 매일같이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야하는데 시원한 비 한 방울 없고 저수지에서 흘러보내는 물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저수지와 가까운 이른바 상답(上畓)을 차지한 농가에서 물을 대부분 끌어가 버려 하루가 멀다고 이웃과 입씨름을 하는 형편이다.

#2. 전남도청 공무원 B씨도 걱정이 태산이다. 여름 가뭀 탓에 용수 확보가 여의치 않은 농가들의 불만이 높고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 벌써 콩잎과 고추 대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은 밭작물 재배농가 일부에서 피해가 생겨난 상태지만 비가 억어가는 9월 초까지는 큰 비가 없으면 정말 큰 일”이라고 했다.

수확기를 한 달여 앞두고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여름 가뭀이 계속돼 콩, 고추 등 밭작물이 타들어가고 이삭이 맺힌 벼도 한참 크려면 물이 필요한데 충분하기는커녕 논밭이 짝짝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가뭀을 해소할 만한 큰 비 소식은 없는 것과 함께 전남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겨우 절반을 웃도는 것도 농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 충분한 양의 저수량을 확보해 최소 9월 중순까지는 정기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해야하는데 올 여름 강수량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평년대로라면 5~8월 중순까지 광주전남에 730mm의 비가 왔어야했는데, 올해는 장맛비도 적어 겨우 470mm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적은 비의 영향으로 저수지 저수율도

폭 주저앉은 상태.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극히 낮은 함평, 구례, 담양지사에 지난 16일부터 가뭀대책상황실을 설치, 가동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일부 농가는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해달라며 저수지와 댐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와 자치단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당국은 제한적인 양의 물만 공급하며 달래야하는 형편이다. 농가의 아우성에도 농어촌공사가 보유

한 물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이유는 농업용수로 쓰일 저수지와 댐 저수율이 겨우 50%를 웃돌고 있는데다 가뭀을 해소할 만한 큰 비 소식도 없어 물공급이 시원찮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47개의 저수량은 총 3억 5193만3000t으로 저수율은 52.7% 수준이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최근 30년) 대비 70% 수준으로 함평·담양, 구례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에 견줘 58~65%로 저조해 가뭀 '경제'와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국은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

주의, 경제, 심각 등 4단계로 가뭀 단계를 나누고 상황에 따라 용수공급의 양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물이 부족한 농민들은 매년 엄청난 예산을 물관리에 쏟아부으면서도 가뭀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적잖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농민 A씨는 “벼농사 100마지기 10년 넘게 짓고 있지만 한 번도 물을 필요한 만큼 끌어다 쓴 기억이 없다. 어제도, 그제도 눈에 물 좀 더 대려고 이웃과 언성을 높여야 했다”면서 “비가 안 온다며 하늘 탓만 하지 말고 정해진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굴려 농민들 시름을 없애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가 17일 나주시에 위치한 영산강 죽산보의 수문을 열고 녹색으로 물든 물을 방류하고 있다. 녹색 창궐을 막으려고 홍수와의 관계없이 처음으로 영산강에서 이뤄진 펄스(pulse) 방류로 총 270만t의 물이 흘러갔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중동 다녀온 광주 30대 메르스 의심 증상 격리

중동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 조치됐다.

17일 광주시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구에 거주하는 A(39)씨가 질병관리본부로 메르스 증상 여부를 문의했다. 서구보건소는 매뉴얼에 따라 음압 격리병상이 마련된 전남대병원으로 A씨를 이송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당국에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고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호소한 A씨는 회사 일로 지난 4월 15일부터 이날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루와이스에 체류했다고 서구보건소는 전했다. A씨가 메르스 확진 환자인지는 18일로 예정된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농촌은 물 부족한데...영산강 보 첫 방류 왜? 녹조 확산에 가뭀던 물 270만t 흘려보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난 2012년 5월 영산강에 수중보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펄스(pulse) 방류가 이뤄졌다. 펄스 방류는 보에 가뭀던 물을 일시적으로 흘려보내고 일정기간 안에 수위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번 방류는 확산하는 녹조 현상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의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이날 하루 동안 총 270만t의 물을 방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승촌보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1시간20분동안, 나주시에 위치한 죽산보는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20분동안 초당 200t의 물을 하류로 흘

려보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영산강홍수통제소 측은 영산강 수계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감안하면 이날 방류로 낮아진 수위(30cm가량)를 회복하는 데 2~3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홍수가 아닌데도 수문을 이날 한꺼번에 열고 보 건설 이후 첫 펄스방류 택한 이유는 확산하는 녹조때문이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에는 지난 6월에 이어 11월 수질에도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지난 11일 기준 죽산보 남조류 세포수는 m²당 1만7000개로 측정됐고 승촌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사흘 넘게 70mg/ni 이상 이어졌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지난 1일 남조류 세포수가 10일만에 1200개에서 1만7000개 수준으로 10배 이상 치솟는 등 녹조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를 보여 영산강환경영역환경청 등 관리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심, 주의, 경제, 심각 등 4단계로 나뉜 수질예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당국은 계속되는 폭염 탓에 녹조 현상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방류를 결정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펄스 방류는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보 건설 이후 첫 시행된 조치로 지난해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 해소 등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문 개방으로 녹조 현상에 따른 악취 등 문제점 일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경찰, 통학버스 전수조사키로

잇단 어린이 사망사고에 법규 위반 단속 강화 방침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남경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민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량 도색(선팅)과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뿐 아니라 통학차량 신고, 후시경 및 경광등 설치 여부 등을 촘촘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번 기회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등 안전 관리에 책임있는 어들과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단속과 함께 통학버스 정차 시 일단 멈추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지난

해 288건으로 3년사이 31%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간 25명에 달했다. 이 중 어린이는 9명(36%)에 이르렀다. 부상자는 모두 1115명으로 어린이는 16.7%인 186명에 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함께 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어린이 안전미흡 미착용이 가장 많고 승차대로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등 안전 관리에 책임있는 어들과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단속과 함께 통학버스 정차 시 일단 멈추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지난

해 288건으로 3년사이 31% 증가했다.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간 25명에 달했다. 이 중 어린이는 9명(36%)에 이르렀다. 부상자는 모두 1115명으로 어린이는 16.7%인 186명에 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와 함께 통학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되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어린이 안전미흡 미착용이 가장 많고 승차대로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수조사를 함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등 안전 관리에 책임있는 어들과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단속과 함께 통학버스 정차 시 일단 멈추기 등 안전운전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2013년 220건, 2014년 248건, 지난

조합원에 굴비 돌린 조합장 실형 선고 구속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굴비 선물을 돌린 광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농협 조합장 A(62)씨에 대한 혐소심에서 A씨의 혐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그러나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사 B(59)씨와 이사 C(73)씨의 혐소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 설 명절께부터 지난 3월까지 광주지역 조합원 800여 명에게 굴비와 생일케이크 등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B씨 등과 함께 차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1700명의 명단을 빼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지지하거나 충립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굴비를 선물했으며, B씨 등은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열 테이블 여성에 주먹질하고 맥주병 던진 만취 여성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열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급기야는 얼굴을 향해 맥주병까지 던진 만취 여성이 경찰서행.

○1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여·22)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0시15분께 광주시 동구 남동 한 주점에서 A(여·21)씨를 주먹으로 3차례 폭행하고,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것.

○술에 취했던 김씨는 A씨의 남자 친구 등 일행 4명이 말릴 사이도 없이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은 “술에 취해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까지 던져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역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상가] 광주 남구 월산동 동가오피스빌 1층 건물 476㎡ 대로변 전시장 판매장 공용매장추천 감평가 15억 ▶ 최저가 15억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 상가 483㎡ 카페, 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평가 8억7천7백 ▶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평가 11억8천7백 ▶ 최저가 8억3천1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평가 57억6천7백 ▶ 최저가 20억6천7백(36%)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평가 21억3천2백 ▶ 최저가 11억9천4백(56%)
- ★ [토지] 광주 광산구 월전동 대지330㎡ 평동산단 원룸부지 교통편리 코너위치 감평가 1억6천4백 ▶ 최저가 1억6천4백 투자추천
- ★ [상가] 영암군 시종면 민수리 3층상가 대지 691㎡ 건물 1008㎡ 감평가 8억8천3백 ▶ 최저가 3억1천6백 (36%) 투자추천
- ★ [공장]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석곡농공단지 대지 4,753㎡ 건물 2,619㎡ 감평가 7억8천3백 ▶ 최저가 2억8천 (36%)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은 ▶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용두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은 ▶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월18억 ▶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신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 매매 50억 (요양병원허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 (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방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6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 (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수 다수 지역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5세대 안진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곡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수 수익형 28억원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자산동 대지 28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스리룸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슈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